

작품 내용

제 목	지문 없는 별자리
내 용	밤하늘엔 별보다 먼저 이야기가 뜬다 누군가의 마음이 벗어놓은 빛의 외투처럼 나는 가끔 문장을 주워 주머니에 넣지만 그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달려 있다 생각은 바람이라도 탄생의 순간엔 각자의 체온을 품는다 한 편의 시는 숲에서 꺾어 온 꽃이 아니라 오랜 계절이 뿌리로 밀어 올린 한 송이 시간 허락 없이 가져간 빛은 손안에서 금세 그림자로 식어가고 존중은 자물쇠가 아니라 별이 제 궤도를 잃지 않게 하는 중력이다 우리는 서로의 창문에 기대어 노래를 듣되 창문까지 떼어 가진 양기로 한다 그래서 저작권은 금지의 울타리가 아니라 창작이 다시 꽃필 수 있도록 남겨 둔 봄의 씨앗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우주가 태어난다 그 이름을 온전히 불러 주는 일로부터.